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셨어요

예레미야 20장 8-11절

여러분은 혹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서
비웃음이나 놀림을 당한 적이 있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다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심지어 만나는 사람마다
예레미야를 비웃고 수군거리고 미워하고 놀렸어요.



지치고 외로운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기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서 뜨겁게
불타올랐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새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해요.

